

# 여수시, 여순사건 TF팀 구성

### 기념공원 조성·희생자 유해발굴 추모사업·학술·사료수집 등 전담 하반기 정기인사 본격 가동 희생자·유가족 명예회복 최선

여수시가 국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 여순 사건 후속 조치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특별법 제정, 기념공원

조성 및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될 TF팀을 구성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신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 제1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령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진실규명 조사와 함께 기념공원, 사료관, 평화·인권 교육과 같은 후속 사업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여순사건 TF팀은 피해 신고,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기념공원

운영 추진 및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활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다양한 학술·학예·교육 업무, 사료 수집 및 보존관리,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민,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유가족분들이 고통이라 한시가 급하다"면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제철소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전기설비 정비 시뮬레이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광양제철소 제공>

## 포스코, VR 전기설비 정비 시뮬레이션 구축

### 정비 위험요인 사전 예방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지용)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전기설비 정비 시뮬레이션 학습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 EIC기술부는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의 가상현실 전기설비 정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정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 담당 직원들이 대형 전기설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비 핵심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상현실 교육은 실제 정비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주요 점검 포인트, 절차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습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특히, 정비 주기가 길어 노하우 습득이 어려웠던 핵심 전기설비에 대해 실습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

의 반복적인 정비 체험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는 가상 교육시스템으로 정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예방할 수 있어 안전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원들은 접근성이 까다로운 고압 전기설비의 안전작업 표준절차를 가상현실에서 반복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게 됐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가상현실 전기설비 정비 교육을 통해 사원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기존 이론교육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반복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른 공영에서도 정비·안전교육에 가상현실 교육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당도 높고 맛·향 우수한 보성 애플망고 나왔어요

### 애플수박·납작 복숭아 등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

보성군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애플망고가 본격 출하됐다.  
보성 애플망고는 18브릭스가 넘는 당도를 보여주며 수입산보다 맛과 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입산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증열 처리를 거쳐야 하고 운송 기간을 고려해 미성숙 상태에서 수확해 맛을 잃는 경우가 많다.  
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을 넓히고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다.  
2017년 조성면에 애플망고 재배 단지를 만들었고, 최근엔 특량면에 애플망고를 위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가에



보성 특량면 애플망고 재배 농가가 수확한 애플망고를 들어 보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애플수박, 캔털루프 멜론, 납작 복숭아 등 유망 신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여성 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안심 거울·비상벨

고흥군이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 거울과 비상벨(사진) 등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 거울은 화장실 출입문에 부착해 거울을 통해 이용자의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안심 비상벨은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고, 화장실에 부여된 고유번호가 경찰서와 연결돼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112) 연계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비상벨 설치 안내 문구는 화장실 입구에 여성안심 화장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광등과 함께 안내 보드판이 부착돼 있다.  
고흥군은 '여성 친화형 안심 화장실'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를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에 구입·배부했고,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는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내 1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지역 대표 떡갈비·닭구이 케이 푸드 상품화 교육

순천시가 지역의 특화 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한 '순천형 특화 메뉴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형 특화메뉴 개발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떡갈비와 닭구이를 케이 푸드(K-food)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외식업체 대표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떡갈비와 닭구이 9종의 메뉴를 개발해 전수하고, 외식문화 생존전략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마인드 교육 등도 병행했다.  
시는 향후 순천형 특화메뉴를 순천시 고유의 상품명으로 상표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수 교육에 참여한 외식업체를 방문



순천형 떡갈비 차림상.  
해 컨설팅 후 순천형 떡갈비 지정업소 현판도 게시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케이팝(K-pop), 케이드라마(K-drama)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제는 케이가든(K-garden), 케이푸드(K-food)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순천의 음식으로 'K-food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등 순천을 케이푸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